

Field Voice >>>

민간발전사 . 전력거래소는 영원한 동지(?)

그동안 사이가 좋았던 전력거래소와 민간발전회사들이 최근 전력시장 선진화 방안을 놓고 불편한 관계가 됐다. 민간발전사들은 정부가 최근 내놓은 'CBP 전력시장 경쟁강화를 위한 시장제도 선진화 연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되자 자연스럽게 정부의 정책을 수용해야 하는 전력거래소와 입장차를 보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고, 지금까지 좋기만 했던 민간발전회사와 전력거래소와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것. 하지만 과거의 좋았던 사이였던 만큼 화해(?)를 위한 서로의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14일 민간발전협회가 마련한 송년 자리에서는 이 같은 양 쪽의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영명전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최근의 분위기를 의식한 듯 민간발전사와 전력거래소가 같은 운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영 이사장은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을 민간발전사들이 주도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길 손꼽아 기다리며 전력거래소 역시 이 같은 흐름에 항상 같이 할 것"이라고 우의를 강조했다. 전력시장 선진화 방안을 둘러싸고 양 쪽이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기는 했지만 역시 민간발전사와 전력거래소의 관계는 돈독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기에 충분했다.

방심이 화를 부른 것인가

정부가 수주를 호언장담했던 터키 원전이 최근 일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우리가 너무 방심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실 터키 원전은 우리가 애초부터 수주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던 것이 사실. UAE 원전에 이어 가장 가능성이 큰 해외원전이었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상황은 순조로웠다. 지난 6월 터키와 정부 간 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사실상 수주에 성공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터키 정부가 건설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들고 나오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중간에 끼어들었고 터키 정부는 양 쪽을 오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파트너를 선택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사실 협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 터키 정부 역시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국가와 계약을 맺으려 할 것은 명약관화 한 일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너무 자신감에 차 있어 상황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터키 원전 수주에 실패할 경우 원전 수출산업화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그리드와 구조 개편의 상관관계

스마트 그리드가 전력산업의 이슈가 된 가운데 이를 위한 발걸음도 활발해 지고 있다. 제주 시범단지가 오픈하면서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워낙 장기사업이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성공여부를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중증과 의구심을 키우는 것은 스마트 그리드를 실현하기 위한 전력산업의 구조에 대한 문제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전력산업구조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환경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스마트 그리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 그리드 관계자들도 언급을 회피하려는 분위기다. 전력구조개편 문제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최근 전력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일단락 됐다고는 하지만 스마트 그리드의 전제조건인 전력구조개편에 대한 그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스마트 그리드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 이런 이유로 스마트 그리드와 전력구조개편의 상관관계는 앞으로 전력업계의 최대 관심거리가 될 것